

재생에너지 팀코리아로 해외진출 본격화

- 재생e 확대 등 변화하는 발전믹스에 대응, 전력시장 제도 선진화 착수
- 효율적 탄소 감축 수단인 CCS 기술 조기 상용화를 위한 전략 마련
- 제31차 에너지위원회 개최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안덕근, 이하 산업부)는 원전·재생·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해외진출 지원, 전력시장 제도 선진화, 탄소포집저장(CCS: Carbon Capture and Storage) 산업 육성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.

산업부는 안덕근 장관 주재로 5월 22일(수) 제31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여, 안건① 「재생에너지 해외진출 지원 방안」, 안건② 「전력시장 제도개선 방향」 및 안건③ 「CCS 산업육성 전략」에 대해 관계부처 및 에너지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였다.

안덕근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“우리나라 에너지 시스템을 무탄소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원전·재생에너지·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원의 공급 역량 확대를 중점 추진해나갈 계획”이라고 언급하고, “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, 화력발전 시대에 만들어진 전력시장 제도를 재생 확대 등 미래의 발전믹스에 맞게 선진화하며, 중요한 탄소중립 수단인 CCS 기술을 조기상용화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최근 4년간 우리 기업들은 총 143억 불 규모(41건, 20.4GW)의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을 수주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. 이에 더해, 지난해 제28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(COP28)에서 123개국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 3배 확대 서약에 서명하는 등 전 세계가 탄소중립의 주요 수단으로 재생에너지를 주목함에 따라 앞으로 글로벌 재생에너지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. 이에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, ①민관 합동 「재생에너지 해외진출 협의회」를 구성하고, 프로젝트별로는 민간·공공 개발사 및 발전사, 제조기업, 수출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“팀 코리아”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역량을 총집결한다. 또한, ②재생에너지 해외진출에

특화된 「종합지원 정보플랫폼」을 구축하여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KOTRA), 해외인프라개발공사(KIND) 등 다수 기관에 분산된 정보를 수요자 중심으로 모아 해외진출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.

또한, 원전·재생·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의 공급 확대를 전력시장이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전력시장 제도를 개선한다. ①실시간 수급 변동성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전력시장을 추가로 개설하고, 가격 입찰제로의 단계적 전환을 토대로 전력 시스템 전반의 유연성을 높여갈 계획이다. ②그간 지속된 전국 단일 가격 체계를 개편하고 분산에너지법에 따른 특례제도를 함께 활용하여 전력자원의 입지 최적화를 추진한다. 한편, ③발전설비의 진입단계부터 시장 경쟁과 계약이 이뤄지는 용량·계약시장을 개설하여 중장기 전력수급 목표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전력시장이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.

아울러,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이산화탄소 감축수단으로, 탄소포집·저장(CCS)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, 국내 산업계의 ▲핵심기술 상용화, ▲국내외 저장소 확보, ▲해외 공동 프로젝트 추진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. 이에, 산업부는 ①핵심적인 기술·인력을 확보하고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한편, ②국내외 저장소 확보를 통한 초기 시장 창출, ③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.

담당 부서 < 총괄 >	에너지정책관 에너지정책과	책임자	과 장	이경수 (044-203-5120)
		담당자	사무관	강봉조 (044-203-5122)
안건 1 < 재생에너지 >	재생에너지정책관 재생에너지정책과	책임자	과 장	남명우 (044-203-5360)
		담당자	사무관	오승헌 (044-203-5366)
안건 2 < 전력시장 >	전력정책관 전력시장과	책임자	과 장	김남혁 (044-203-3910)
		담당자	사무관	조우신 (044-203-3913)
안건 3 < CCS육성 >	에너지정책관 에너지기술과	책임자	과 장	홍수경 (044-203-5150)
		담당자	사무관	정지훈 (044-203-5151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

